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변화와 축제 : 겐라겟사와 카니발의 사례 *

주종택(순천향대 국제문화학과)**

- I.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축제
- II. 사회적 변화와 축제
- III. 멕시코의 겐라겟사 축제
- IV. 브라질의 카니발
- V. 현대사회와 축제
- VI. 결론

I.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축제

라틴 아메리카의 중요한 전통문화의 하나인 축제는 음식, 언어, 의상 등 여타의 문화적 요소와 마찬가지로 식민사회 이전의 원주민의 문화적 전통과 유럽의 천주교 문화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축제는 종교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거의 모든 행사가 천주교의 절기에 맞추어 진행된다. 그런데 천주교의 축제가 원주민의 토속적인 문화전통을 포함하게 된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천주교가 유럽의 그것과는 달리 원주민들의 민간신앙과 융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종교적 융합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 본 연구과제는 2003학년도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조성비 일반연구과제로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Jong-Taick Joo(Soonchunhyang University, jtjoo@sch.ac.kr), "Social Changes and Festivals in Latin America: Guelaguetza and Carnival".

약간 상이하게 나타난다. 안데스 지역에서는 원주민의 종교행위가 천주교의 그것과 함께 존재하는데 비해, 멕시코 지역에서는 식민지배 이전의 종교적 요소가 지속되지만 천주교의 믿음이나 상징에 내재되거나 종속되어 있다(Rowe and Schelling 1991, 71). 이런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인 믿음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오래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런 혼성화된 문화 속에서 원주민 문화와 유럽의 문화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원주민들도 식민사회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서 천주교의 성인을 기리는 의례도 원주민들은 마치 자신들이 숭배하던 토속적 신을 기쁘게 하던 축제의 형식을 빌어서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천주교의 성인을 기리는 공적인 축제가 지역마다 독특한 원주민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아 화려한 춤과 장식, 제단, 행진, 음식 등과 함께 벌어진다. 멕시코 중부지역의 우에야판(Hueyapan)의 사례를 보면 축제의 전통은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식민시대에 확립된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외부인들에게는 이색적이거나 원주민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것 같은 요소가 있지만, 이런 소위 원주민의 관습도 유럽의 영향을 받아 유럽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Friedlander 1975, 104-105). 이런 현상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축제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나타난다. 18세기의 예를 보면 멕시코 북부지역의 치와와(Chihuahua)에서 광산을 개발하던 업자들이 축제로 인해서 노동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불평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다양한 공민적·종교적 축제에 주기적으로 그리고 오래 참석하면서 충분한 노동력을 적절한 시기에 확보할 수 없고 또한 자주 벌어지는 지나친 축제에 노동자들이 정신을 빼앗겨서 휴일이 끝나도 작업장으로 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Martin 1991, 101).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멕시코나 중미 지역에서는 북미지역에 불법 혹은 합법적으로 가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대거 고향 마을을 방문한다. 이것을 보면 축제가 이들의 생활에 얼마나 깊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축제는 의미와 형태, 기원,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대의 농경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의례이다. 특히 정복 이전의 메소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부터 매우 중요한 작물이었던 옥수수가 이런 의식에서 중요했는데, 마야 원주민들의 믿음과 생활이 기록된 『포폴 부』(*Popol Vuh*)에 의하면, 원주민들은 사람의 살이 흰색과 노란 색의 옥수수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신화적인 요인들과 더불어 축제의 시기가 결정되었는데, 의례는 건기인 가을과 겨울, 우기인 봄과 여름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진다. 즉 농업과 관련되어 수자원의 획득과 작물의 재생산이 축제의 내용과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아직도 농사를 시작하거나 추수를 할 때, 그리고 기후나 날씨가 농사에 좋거나 나쁠 때 다양한 축제가 벌어진다.

둘째, 도시나 지역, 마을 아니면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성인(*patron saint*)을 위한 축제이다. 수호성인은 식민시대에 생긴 것으로, 유럽인들이 도시나 지역 사람들을 군사적·영적으로 정복한 다음에 집단이나 사회를 보호해주는 성인을 지정하면서 생겼다. 유럽인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원주민 사회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수호성인을 정해서 관리했다. 이런 형태의 축제는 성인의 힘을 빌어 종교적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각각의 도시나 농촌 마을마다 수호성인이 있고 각 사회마다 수호성인의 날에 가장 큰 규모의 축제를 개최한다(주종택 1998, 51-62). 요즘은 특정한 사회를 지배하는 수호성인뿐 아니라, 운전사, 교사 등 각 이해 집단을 대표하는 수호성인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셋째, 성지 순례와 관련된 축제이다. 주로 예수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기적이 일어난 곳이 순례의 장소로 정해진다. 여

러 지역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 거대한 성지가 조성되었고 숭배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멕시코에서는 갈색 피부를 가진 성모 과달루페(Guadalupe)를 모신 바실리카(Basilica)가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는 원주민 고유의 풍요의 여신인 토난친(Tonantzin)이 과달루페로 바뀌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Poole 1995). 이것은 천주교의 선교로 인한 천주교와 원주민 신앙의 융합을 의미한다. 즉 고대사회 원주민들이 숭배하던 신이 기독교의 신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한편 식민시대에 정복자들에 의해 광산이 많이 개발되었는데 원주민의 신화에 의하면 땅을 파헤치는 것은 지구의 내장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적절하게 달래지 않으면 신이 인간의 피를 요구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광산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에 대한 순례가 많다(Nash 1993; Taussig 1983 참조). 한편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성지를 방문함으로써 지역간의 사회적 경제적 연결망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세례, 결혼, 죽음 등의 통과의례에 수반되는 축제이다. 이런 통과의례의 축제를 통해 가족 내에서 개인의 역할을 부여받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다양한 행사가 벌어졌고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런 행사의 규모와 내용은 지역, 시간,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라틴 아메리카의 각 지역마다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위와 같은 축제가 열려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요인들이 합쳐져서 축제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처음의 목적과는 다르게 축제의 의미와 내용이 변화되는 사례도 있다. 오늘날에는 명확하게 성격을 규정하기 힘든 모호한 축제도 제법 많이 등장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기본적인 축제의 의미와 성격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축제가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축제에 관련된 여러 의무를 많이 수행한 사람은 높은 위

신을 얻었고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원로로 인정받아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Cancian 1965; Harris 1964, 26; Stephen 1991, 164; Vogt 1990). 즉 식민시대 이전부터 축제가 일상화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축제가 빈번하게 열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매주일 어느 지역에서나 아름답게 장식을 한 행진과 더불어 춤과 음악이 곁들여진 축제를 볼 수 있다. 각 국가와 지역마다 이처럼 화려하고 풍성한 축제를 많이 벌여서 현재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축제는 종류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위도 훨씬 적극적이고 격렬하다. 예를 들면 어떤 축제에서는 질서라는 개념이 사라진다. 혼란 속에서 거의 모든 것이 축제에서는 허용된다. 기존의 계급이나 성의 틀이 무시되고 여러 제도나 권력층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규칙이나 관습이 위반되기도 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축제를 통해 모든 이질적인 것이 일시적으로 통합되기도 한다. 참가하는 사람들의 흥을 부추기려고 축제 때에는 여러 가지의 악기와 장비들을 사용하면서 매우 소란하게 진행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모든 문제들도 축제에 포함되는데 그것은 멕시코인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은 “축제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고독을 탈피하고 자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Wolf and Hansen 1972, 115-116)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축제는 외롭고 제약이 많은 멕시코인이나 다른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중요한 카타르시스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겠다. 축제가 열리는 경우는 종교적이거나 애국적 행사일 수도 있고 생일이나 성인을 기리는 날일 수도 있으며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대부나 대모의 날, 어린이의 날, 교사의 날, 건축가의 날, 우체부의 날, 택시 기사의 날, 미화원의 날, 비서의 날, 군인의 날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여러 특별한 때도 포함된다. 축제를 통해 선물을 주고받으며 집단적인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폭죽, 악기, 노래, 고함 등과 더불어 내적인 침묵을 깨뜨린다(Riding 1984, 12). 그래서 축제 때가 되면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이 가능해지며,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긴장을 완화시켜서 사회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

II. 사회적 변화와 축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의 신앙과 천주교에 의해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축제는 유럽으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자본주의적 발전이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기존의 축제는 공동체 생활, 공동체의 경제조직, 문화적 구조, 정치적 관계 등 많은 내적·외적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면 원주민들은 축제를 맞이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특별한 의상과 장식을 준비하며 평상시에는 자주 먹지 않던 음식도 먹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제가 갖는 신성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다. 아직도 이런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농민들의 축제이다. 이들의 축제는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사건이나 믿음을 축하하는 것으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축제가 항상 사회를 통합시키고 경제적 재분배를 통해 보다 동질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소비의 증가를 통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적 차이를 강조하게 되고 마을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천주교의 성인을 기르는 공적 축제인 마요르도미아(Mayordomía)에서 쉽게 확인된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의 축제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종교적 의미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인 축제가 많이 남아있던 원주민 사회에서도 점차로 외부사회의 영향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고유한 관습보다는 다른 것에 훨씬 많은 신경을 쓴다(Cancian 1992). 그중에서도 원주민 사회에서 축제체계의 변화는 천주교 성직자의 수가 감소한 것과 교회의 정치적 역할이 변한 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

는다. 특히 독립이후 많은 성직자들이 떠나서 1830년대에 이르러 성직자의 수는 과거의 2/3에 불과해서 오래 동안 성직자를 보유하지 못하는 마을이 많아졌다. 한편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도 축제의 축소에 기여했다. 자유주의자들은 보수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종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교회의 권한과 재산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de la Peña 1981, 55-56). 식민시대에는 교회가 원주민이 숭배하던 종교와의 융합을 묵인하거나 장려했는데, 그것은 당시에는 믿음과 실천을 통제할 힘이 있었고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행위나 믿음을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성직자들이 과거에 지녔던 힘을 상실했으며, 단지 사람들에게 고용되어 자신들의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위치로 전락했다. 따라서 성직자들은 마을 사람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 이단시되는 경우에도 의례의 지역적 관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전에 농촌지역에서 주로 행해지던 축제가 도시지역에까지 확산되었다. 도시지역의 축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요소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나갔다. 이렇게 되면서 농촌과 도시 지역은 원주민과 서구인들처럼 뚜렷하게 대비되는 문화적 현상을 발전시켰다. 즉 원주민이 아직 남아있는 농촌에서는 축제가 생산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채로 농업의 주거나 종교적 시기에 맞추어 진행된다. 축제는 공동체와 관련을 가지면서 사회경제적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렇지만 계급이 분화되고 가족관계가 변하며 기술과 상업의 발전이 촉진된 도시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사회적 통신수단이 등장하면서 다른 형태의 축제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가 실시되는 시기도 임의적이고 종교적 주기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에도 상업적인 요소가 뚜렷하게 표현된다. 가르시아 칸클리니(García Canclini 1993, 87-89)는 힐베르토 히메네스(Gilberto Giménez)의 모델을 근거로 전통적인 농촌의 축제와 도시의 축제의 특징을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농촌의 축제는 정규의 시간과 단절되어 있고 집합적이며 이질적인 것을 포용한다.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실시되며 제도화되고 의례화되어 있으며,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며, 농업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반해, 도시의 축제는 일상생활에서 부수적인 것이며 개별화되고 선택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파편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다. 한편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고 세속화되어 있으며 축제를 보는 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모든 축제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의 내용과 형식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는 축제에서 과거의 구조와 의례가 약화되면서 근대적인 요소로 대체되거나 새롭게 첨가되면서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García Canclini, 1991, 100; 1995). 그 중에서 농업의 절기와 성지순례에 관련된 축제는 사라지거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반면에 개인의 통과 의례나 행위에 관련된 축제는 많아지고 활성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 성인식, 세례 등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사회적 과정을 기념하기 위해 축제를 여는데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이런 경향이 심화된다. 이런 개인적 축제의 발달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기존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개인적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자신의 부와 권력을 남에게 과시하려는 의도로 나타난다. 이런 축제에는 과거와는 달리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분이 있어서 초대를 받은 사람만 가기 때문에 사회적 이질감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즐기던 축제에서 점차로 상업적 요소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이 주최하는 축제에서도 돈을 주고 밴드를 초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입장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흔하다.

전통적인 농촌의 축제가 도시의 축제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변화가 수반된다. 예를 들면 괴상하게 생긴 가면을 쓰고 춤추는 것이 과거에는 지역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국가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Rowe and Schelling 1991, 104-105). 즉 특정한 사회의 지역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이미지가 국가정체성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농촌의 축제가 도시의 축제로 바뀌면서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다. 더욱이 원주민을 국가사회에 통합시키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아직도 잔존하는 원주민의 관습을 관광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결합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축제는 빠른 속도로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점차로 농촌의 축제는 도시의 상업적 유형을 쫓게 되고 부분적으로 흥미위주의 오락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런 변화의 예로 멕시코 오아하카(Oaxaca) 주의 겔라겟사(Guelaguetza) 축제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의 카니발을 비교해 본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겠다. 또한 두 나라 모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관광산업이 전체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겔라겟사와 카니발은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축제이다. 게다가 많은 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행사라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이 두 축제에서는 점진적으로 대중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라틴 아메리카 축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III. 멕시코의 겔라겟사 축제

겔라겟사는 아스테카(Azteca) 사회에 기원을 둔 축제로서 충분한 비와 풍성한 수확을 신에게 기원하는 것이다. 겔라겟사라는 명칭은 멕시코 오아하카 주에 사는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사포테코(Zapoteco)어로 '봉헌', '참여', '협동', '선물'을 의미한다. 폐쇄적인 내적 공동체의 조직을 발전시켰던 멕시코의 원주민들은 선물을 의례적으로 교환하는 축제를 발전시켰는데 겔라겟사는 그 중의 하나이다. 사포테코인들은 농업,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의 건축, 사람의 출생과 죽음 등

의 행사에 서로 돕는 풍습이 있었다. 마을 내의 구성원 중에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서로 참여하는데 이때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았다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갚는 호혜적 관계이다. 특히 인구의 부족으로 농업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실정에서 바쁜 농사철의 농업 켈라겟사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다시 말해 켈라겟사는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이런 기쁨을 신과 함께 나누는 축제이다. 이렇게 호혜적인 교환으로 축제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특징이다(Monaghan 1996, 235).

오아하카는 아스테카의 마지막 황제인 모кте수마(Moctezuma)의 지시로 1486년에 왁스야각(Huaxyacac)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 아스테카로서는 이 지역이 중미를 침략하는 좋은 기지여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기가 용이했다. 1501년과 1502년 사이에 오아하카의 사포테카와 미스테카(Mixteca) 지역이 멕시코(Mexica)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때까지도 원주민들은 옥수수의 여신인 센테오틴(Centéotl)을 옥수수 알의 여신인 실로넨(Xilonen)과 전쟁의 신인 우이칠로포츠틀리(Huitzilopochtli)와 함께 숭배했다. 원주민들의 주식이 옥수수였고 그밖에 토마토, 콩, 고추, 호박을 소비했기 때문에 물과 옥수수를 지배하는 신이 당연하게 가장 높은 서열을 차지했다. 또한 그들에게 바치는 의식은 음악, 춤,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물을 포함한 활기찬 축제였다. 이런 행사는 작물의 성장에 유익한 비가 충분히 오는 여름의 우기 중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비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오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때가 7월 16일경이며 이때부터 이 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졌다. 당시에 왕과 성직자들은 춤을 추며 백성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제공했고, 반대로 평민들은 금, 깃털, 작물, 동물을 바쳤다. 이들은 모여서 영광스런 과거와 정복에 관해 이야기했다. 특히 여자에게 옥수수의 여신의 복장을 하게 한 다음에 마약성분이 들어 있는 버섯을 먹게 한 다음에 인신제물로 희생시켜서 그녀의 심장을 신에게 바쳤다. 그녀의 시신은 화장을 시켜서 재를 바람에 날려 땅을 기

롭지게 하는데 이용하였다.

1521년에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원주민이 숭배하던 여러 신과 여신은 천주교의 성인과 동일시되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었다. 정복자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이외의 이교를 금지하고 모든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려고 노력했다. 센테오투를 기념하는 사원도 파괴하고 대신에 산타 베라크루스(Santa Veracruz) 성인을 기리는 의식으로 바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사회 내부에서는 원래의 토속의 세 신에 대한 의례는 지속되었다. 매년 7월 16일이 되면 원주민들은 오아하카의 언덕에 모여 신에게 축하를 드렸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으며 악기를 연주했다. 그러자 천주교를 주입시키려는 정복자들은 1679년 성당을 짓고 기존의 축제를 카르멘(Carmen)을 위한 것으로 만들면서, 원주민의 축제는 그 다음 월요일에 하게 만들었다. 스페인인들은 축제와 관계된 새로운 작물과 기술도 함께 도입했다. 과거에는 면으로 된 옷만 입었지만 그 다음부터 모나 비단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17세기 들어 카르멘을 위한 지역축제가 미사와 행진과 함께 언덕을 오르면서 진행되었다. 많은 원주민들의 악기를 이용해서 원주민 의상을 입고 참여했다. 한 때는 종이와 천을 이용해서 만든 용과 뱀의 모습에 사람이 들어가 행진에 참여하는 타라스카(Tarasca)라는 의식도 행해졌지만 1741년에 성모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주교에 의해 금지되었다. 대신에 원주민, 스페인인, 흑인의 모습을 가진 거인들의 춤을 추게 하였다.

1932년에 이르러 과거에 비야 데 안테케라(Villa de Antequera)라는 이름을 가졌던 현재의 오아하카 시가 40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때 카를로스 5세가 의해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을 ‘베야비스타 언덕’(Cerro de Bellavista)이라는 명칭에서 ‘포르틴 언덕’(Cerro del Fortín)이라고 개칭하고 본격적인 공적 축제로 만들어지면서 겐라겟사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이 때가 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온 원주민들이 각자 자신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갖고 와서 교환했다. 1951년이 되어 겐라겟사는 ‘언덕의 월요일’(Lunes del Cerro)이라는 이름과

함께 근대적인 축제로 발돋움했으며, 그 다음부터는 매년 7월 16일 이후의 두 월요일에 각각 한번씩 켈라겟사 축제가 실시되었다(예외적으로 월요일이 오아하카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베니토 화레스가 사망한 7월18일이면 그 다음 두 월요일에 축제를 연다). 이 축제가 멕시코 뿐 아니라 전세계의 여러 지역에 알려져서 명성을 얻게 되어 관광객이 늘어나자 1974년에 11,000명을 수용하는 원형공연장을 지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현대의 켈라겟사는 오아하카의 7개 지역인 바예스 센트랄레스(Valles Centrales), 시에라 화레스(Sierra Juárez), 카냐다(Cañada), 파팔로아판(Papaloapan), 미스테카(Mixteca), 해변지역, 테완테펙 지협(Istmo de Tehuantepec)의 원주민들이 고유의 춤, 의상, 음악을 선보인다. 축제는 전전날인 토요일 아침에 여신인 센테오틀을 대신할 켈라겟사의 여왕을 선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왕은 켈라겟사에 참가하는 대표중에서 외적인 미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종족기반과 전통, 역사, 관습에 대한 지식에 의거해 뽑는다. 이어서 저녁에는 광장에서 참가대표들이 거리행진을 한다. 종이와 천으로 만든 등불인 마르모타스(Marmotas)를 들고 인형인 모니고테스(monigotes)를 갖고 행진을 한다. 이들은 원주민 복장으로 입고 사탕을 던지며 마게이(maguey)로 만든 전통 술인 메스칼(mezcal)을 마신다. 다음날인 일요일 저녁에는 수세기 동안 지내온 켈라겟사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바니 스투이 굴랄’(Bani Stui Gulal)이라는 행사가 펼쳐진다. 여기서는 켈라겟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주고 그동안 변해온 과정을 사람들에게 들려준다.

월요일 새벽 5시에 원주민 고유의 피리와 북으로 라스 마냐니타스(Las Mañanitas)라는 아침의 노래를 부르면서 7개 지역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거리에 나서면서 행사가 시작된다. 아침 일찍부터 음악과 불꽃놀이로 한층 흥을 북돋운다. 선출된 센테오틀 여신과 주지사 그리고 대통령이나 그밖의 내외 귀빈들이 도착한 다음에 10시부터 축제가 벌어지는데 각 지역마다 독특한 춤과 함께 대사가 말해진다. 마지막은 ‘깃털 춤’(Danza de la Pluma)이 장식한다. 이는 멕시코의

세 신인 옥수수와 전쟁의 신을 숭배하는 정복이전의 의식을 변형시킨 것으로 깃털 장식을 한 복장을 하면서 춤을 춘다. 이렇게 해서 모든 행사가 오후 1시경에 끝이 난다. 겔라갯사의 본래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춤이 끝날 때마다 춤을 춘 사람들은 빵, 꽃, 약초, 망고, 파인애플, 검은 도자기, 바구니 등 자신들의 마을에서 생산한 것을 관객들에게 던져준다. 마지막으로 오아하카 사람들이 찬미하는 문장이 된 “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Dios nunca muere)라는 말로 막을 내린다. 행사가 끝나고 월요일 저녁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포테코의 마지막 공주였던 도나히(Donaji)의 이야기를 극으로 표현해서 보여준다. 겔라갯사가 벌어지는 두 월요일 사이의 시기에는 여러 행사가 진행된다. 오아하카 지역의 음식과 수공예품, 예술작품이 전시되고 메스칼 박람회가 개최되며 콘서트와 다양한 문화행사가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열린다.

현재는 겔라갯사 축제에 오아하카의 7개 지역의 원주민 사회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보내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별도의 의례나 행사는 하지 않고 있다. 단지 다음 해에 대표로 나갈 사람들을 선정해서 계속 연습을 하다가 7월의 축제에 참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주민 마을 내에서의 전통적인 축제와 의례 기능은 상실되었다. 축제에 참여하는 지역에서는 신체적인 특징에서 비교적 원주민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표로 선발한다. 행사비용은 원주민 사회에서도 일부 지원하지만 대부분 주정부나 정부의 원주민기구에서 책임지고 있어서, 과거와 같이 원주민들이 행사의 내용과 성격에 관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원주민과 비원주민들에게 부분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주정부나 원주민 사회 모두 경제적 효과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외국인을 제외하더라도 겔라갯사를 보러 오는 사람 중에 원주민은 거의 없고 대부분 백인과 메스티소들이 자리를 차지한다.

IV. 브라질의 카니발

브라질의 대표적인 축제인 카니발(carnival, 포르투갈어로는 carnav-al)은 매년 4순절 전의 토요일에 시작해서 프랑스어로 ‘마디 그라’(Mardi Gras)라고 부르는 ‘오순절의 화요일’(Shrove Tuesday) 혹은 ‘참회 화요일’(Fat Tuesday)까지 4일간 벌어지는 행사이다. 부활절 7주전에 벌어지는 카니발은 브라질의 축제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카니발의 어원은 라틴어의 ‘carne’(살고기)와 ‘levare’(들다)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 또는 이탈리아어의 ‘carne vale’(고기여 안녕)에서 온 것으로 부활절 전의 40일인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자기부정과 절제를 하면서 육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송별한다는 뜻으로 고기를 먹은 데서 비롯되었다. 카니발의 날짜는 매년 바뀌는데 언제나 2월 3일에서 3월 9일 사이이다. 카니발은 천주교를 신봉하는 유럽과 미주대륙의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데 장엄한 퍼레이드, 장식 수레, 정교한 의상, 가장행렬 등이 펼쳐진다. 유럽에서는 조금씩 카니발이 사라지고 있지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의 카니발은 유럽의 그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격렬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카니발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 2월에 행해졌던 풍요의 축제로 시작되었다고 보면서, 그리스의 디오니소스(Dionysos)나 로마의 박커스(Bacchus)신을 기리는 축제가 발전된 것으로 본다. 이런 의례에서는 가면을 쓰고 많은 술과 음식을 먹으며 노래와 춤을 추고 성에 탐닉하며 기존의 일상적인 사회가치와 위계체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중세(5세기에서 15세기)에는 왕과 영주들이 젊은 남자들에게 작위를 주고 그들을 기념해서 축제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카니발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브라질의 카니발은 16세기 중엽에 포르투갈에서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 유입된 ‘엔트루두’(entrudo)라는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밀가루나 진흙, 여러 액체를 던지는 의식이었다. 거리에서는 서로 밀가루를 집어던지고 집

에서는 레몬이나 오렌지 형태로 만든 발사체에 물을 채워서 던졌다. 이와 함께 많은 음식과 술을 먹었다. 엔트루두는 19세기까지 지속되었으나 점차 춤과 음악이 포함되는 축제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Rowe and Schelling 1991, 131).

브라질에서는 카니발이 17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카니발의 대표적인 행사인 무도회는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1840년에 무도회가 시작되어 가면과 가짜 턱수염과 콧수염을 사용해서 재미있는 복장을 하게 되었다. 1848년에는 드림을 이용한 퍼레이드가 진행되었고 1850년에는 경쟁적인 퍼레이드로 변했다. 이어서 1852년에는 드림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 후에는 각종 악기가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카니발 형태가 나란히 존재했었다. 호텔이나 극장에서는 중산층에 의해 유럽의 카니발을 흉내낸 무도회가 열려서 폴카, 탱고, 왈츠 등을 추었다. 한편 흑인들과 가난한 백인들은 아프리카의 토속종교인 칸돔블레(Candomblé) 신자들의 의상과 함께 광대, 악마, 왕, 여왕, 박쥐, 해골의 모양으로 위장하고 삼바(Samba) 춤을 추었다. 흑인들이 주도하던 카니발에서는 아프리카 종교의 영향이 두드러졌지만 거리의 퍼레이드는 천주교 행진의 특징을 그대로 따랐다. 하층 계급 사람들은 카니발에 참여하면서 대중적인 카니발 협회를 조직했고, 언론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사회에 보여주고 사회적 인식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1855년이 되면서 최초의 카니발 클럽이 생겼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조직화된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유럽식의 카니발에서 벗어나 브라질 특유의 축제로 변화되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였던 흑인들의 다양한 노래와 춤, 의상 등이 카니발에 더해지면서 더욱 화려해졌다. 특히 1870년 이후에 북부의 커피 플랜테이션이 침체되면서 이 지역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많은 흑인 노예들이 리우로 이주하게 되자 흑인들의 전통이 카니발에 크게 반영되었다. 1907년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퍼레이드가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20세기 초의 리우 카니발의 주요한 볼거리가 되었다. 1930년대부터 카니발의 무

도회가 본격적으로 발전했으며 유명한 삼바 퍼레이드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932년에 19개의 삼바학교가 최초로 퍼레이드를 시작했으며, 공식적인 삼바 퍼레이드는 1935년부터 인정을 받았다. 한 동안은 카니발에 흑인들의 문화적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던 브라질 사회에서 1935년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삼바학교의 퍼레이드를 인정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 삼바학교들이 세워져서 서로 다른 색의 깃발과 상이한 드럼의 박자를 사용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와서는 중산층이 삼바학교에 참여하면서 미적인 요소들이 강조되었다. 특히 저명한 예술가들이 삼바학교의 예술적 훈련을 도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가 되면 경제적·행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1984년에는 리우의 중심지에 700미터 길이의 삼보드롬(Sambodrome, 포르투갈어로는 Sambódromo)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카니발의 행진을 하게 되었다. 삼바 퍼레이드는 삼바 학교(Samba School)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일요일과 월요일에 특별 그룹 소속의 학교들이 대표로 행진에 참여한다. 퍼레이드는 저녁 7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6시경까지 계속된다. 매년 같은 삼바학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두 학교가 낮은 등급으로 떨어지고 새로운 학교가 올라온다. 2003년에는 14개의 삼바학교가 참여하여 경쟁을 벌였다.

삼바학교는 1928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어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졌다. 삼바학교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통 빈민촌인 파벨라(favela)나 교외의 주거지역에 같이 사는 이웃 사람들의 자발적 모임이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하지만 한 해의 카니발이 끝나면 다음 해의 카니발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수시로 모여서 연습한다. 삼바학교는 카니발이 열리는 기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 내내 활동한다. 다가올 카니발을 위해 연습을 하고 사회적 혹은 오락행위에 참여하며, 생일, 결혼, 장례식, 그리고 이웃의 수호성인을 기리는 종교적 행사에도 관여한다. 매년 각각의 삼바학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상과 춤, 그리고 장식 수레를 준비한다. 이렇게 해서 가

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제적 자원을 다음 해의 카니발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사용한다. 각 학교마다 3,000~5,000명의 회원을 참가시키는 데 6~8대의 장식 수레를 마련해서 1시간 20분 동안 삼보드롬을 지나간다. 행진은 삼바학교의 협회인 '리에사'(LIESA, Liga Independente das Escolas de Samba)에서 관정을 하는데 수상을 하게 된 5개의 학교가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승자들의 퍼레이드를 다시 벌인다. 1990년 현재 리우에는 공식적으로 56개의 삼바학교가 있다. 삼바학교에 드는 비용은 입장권 판매, 텔레비전 중계권으로 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것은 회원들이 자기부담으로 메운다.

삼바 퍼레이드 이외에도 현재에는 많은 거리에서 돈을 받지 않는 다양한 카니발을 열어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현재는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는 삼바학교의 퍼레이드만 주목을 받지만 여타의 삼바학교에서도 카니발의 공식행사를 전후해서 시내의 여러 지역에서 별도의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카니발도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의 문화적 요소가 융합되어 나타난다.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이 유럽과 원주민의 문화가 융합된 것과는 달리 유럽과 흑인들의 문화가 섞인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일하기 위해 노예노동자로 끌려온 흑인,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물라토(mulatto)들의 춤, 음악, 노래, 의상, 음식 등이 유럽의 그것과 서로 결합되어 나타난다. 아프리카의 리듬과 함께 그들이 추었던 춤이 삼바로 발전했고, 아프리카 요루바(Yoruba) 부족의 종교인 칸돔블레의 의식이 유럽의 천주교와 함께 카니발에 유입되었다.

카니발은 아직 빈민촌인 파벨라에 거주하는 흑인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기 때문에 행사의 내용에서도 흑인들의 문화적 전통이 그대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도 삼바가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 흑인들이 집단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파벨라 거주자들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사회 문화적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 경제적 생활여건의 개선은 지극히 미미하다. 해가 갈수록 축제의 내용과 성격은 흑인들의 실제생활과는 거리가 있다. 점차적으로 정부와 언론, 그리

고 기업에 의해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과거보다 흑인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관람객은 외국인과 백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V. 현대사회와 축제

V.1. 세속화와 탈종교화

식민시대 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종교가 독립 이후에 힘을 상실하게 되면서 축제에도 이런 현상이 반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면서 종교가 과거보다 다양해졌다는 것도 탈종교화를 부추긴다. 과거에는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특별한 시기에 행해지던 축제가 이제는 많이 퇴색했다. 켈라겟사의 경우에는 센테오틀과 성인을 기리는 의식이 거의 상실되어서 형식적으로 변화되었으며 농업에 관련된 의미도 더 이상 표현되지 않는다. 오아하카의 원주민 마을에서도 센테오틀을 위한 의례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카니발의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다가오는 사순절을 대비하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게 되었다. 참가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적 요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며 기독교와 무관하거나 종교적 신성함을 거부하는 행진이나, 춤 장식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카니발은 이미 종교적 의미가 사라진 이교도의 축제라고 말한다(Harrid 2003, 215). 두 축제에서 종교전문가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과거와 같은 종교와 축제의 밀접한 관계가 거의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제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여러 형태의 오락적 요소가 첨가되면서 탈종교화 및 세속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탈종교화 현상은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는 적극적인 의식적인 노력의 하나라고 하겠다.

V.2. 상업화와 대중문화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축제에 있어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나타나면서 상업화가 시도되고 있다. 오랜 시기를 거치는 동안 축제에도 여러 변화가 발생했다. 규모가 커지고 미적인 요소와 더불어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이 보강되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스스로 즐기는 축제에서 남에게 보여주는 축제로 탈바꿈하면서 상업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브라질의 카니발과 멕시코의 겐라겟사는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겐라겟사는 오늘날의 축제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준다. 즉 과거에는 마을이나 지역에서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함께 즐기던 축제가 이제는 오아하카의 원형경기장에서 개최되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동적인 축제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비싼 입장료를 지불해야(아직 무료로 볼 수 있는 일부의 자리가 남아 있지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이 축제가 널리 알려지면서 몇 달 전에 이미 표가 매진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자 많은 오아하카 시의 호텔과 음식점에서 거의 매일 겐라겟사 축제를 흥내낸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겐라겟사 춤을 가르치는 곳도 생겼다. 거리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준비하는 겐라겟사 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로 탈바꿈하면서 춤, 음악, 의상 등도 현대적으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으며 관광객들을 조금이라도 더 머물게 하려고 기존의 행사를 전후해서 선텐테오티 여신을 뽑는 것이나 바니 스투이 굴랄 같은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발되었다.

카니발의 경우에도 이 축제가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해외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상품의 역할을 하게 되어 기존의 축제와는 상이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브라질의 문화적 특징을 카니발에 부분적으로 반영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되돌아보며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중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지나친 상업주의에

빠져서 고유한 전통을 왜곡시키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사로 변질되었다. 카니발은 1920년대 초 라디오와 음반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문화시장을 열게 되었다.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음악가의 등장으로 기존의 즉흥적인 음악이 사라지고 상업적 광고가 시작되면서 삼바는 이익을 창출하는 오락으로 변화했다(Rowe and Schelling 1991, 134). 입장권의 판매와 더불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면서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게 되었고 영상이나 음향매체를 이용한 상품의 판매도 늘어나서 막대한 수익금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보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격렬하고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축제의 형태로 변화되어 간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느리고 부드러운 선율적인 음악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빠르고 급격히 변하며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음악으로 바뀌었으며, 춤의 경우에는 곡예적인 형태가 강조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동작이 가미되었다. 또한 방송에 의해 제한된 시간 때문에 축제의 진행이 빨라지고 음악 보다는 영상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둔다. 한편 성형수술을 한 B급 모델이나 여배우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나체로 행진을 하면서 관객들의 흥미만 자극시키고 있다.

특히 삼바학교에 막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카니발을 준비하는데 관여하면서 상업적인 성격은 한층 심해진다. 삼바학교의 규모가 커지고 중요해지면서 전문적인 예술가가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다. 악기나 의상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재정부담이 커지고 법률가, 회계사, 행정을 맡은 직원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축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것으로부터 점차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통제되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문화산업의 하나로 변화되어 간다. 과거에는 삼바학교의 구성원들이 신화나 민속에서 퍼레이드의 주제를 직접 선정하였으나 지금은 대기업의 지원으로 위장된 광고의 형태로 된 주제를 고르고 있는 실정이다. 비싼 입장료 때문에 삼바드럼의 대부분을 관광객이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삼바학교 사람들과 같이 행진하는 사람들 중에 회원이 아니라 300달러 이상의 돈을 주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있다(New York Times, 2003/02/25)고 한다.

오늘날 카니발이 브라질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카니발을 모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카리브 지역에서도 보이듯이 카니발과 같은 축제를 더욱 수익성이 있는 전문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하층민들의 진정한 문화적 표현이라고 하는 당초의 의도와는 배치되는 것이다(Green, 2002, 284). 카니발의 광범위한 확산은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카니발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 반면에, 이것이 지니는 고유한 진정성을 훼손했다.

상업화와 대중문화화가 진행될수록 축제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축제의 내용과 성격은 대중들의 요구에 의해 끊임없이 조작되고 변화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축제에 관여했던 주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비대해진 축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변했다. 이러 현상의 결과로 축제의 제도화와 조직화가 초래된다. 즉 겔라겟사는 정부에 의해 카니발은 일반 기업에 의해 각각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겔라겟사 축제는 원주민들이 아니라 오아하카 주의 관광부(SEDETUR)에서 주관한다. 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참여하는 집단을 조직하고 행사를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는 멕시코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 멕시코 국립 민속발레단(Ballet Folklórico de México)의 공연에 '오아하카의 겔라겟사'라는 명칭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입장권의 판매와 참가하는 대표의 선정 등 행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카니발의 경우에는 방송국이나 공연단체 등 기업화된 집단의 참여로 참가자들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외부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LIESA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보다 관료화된 조직의 출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V.3. 사회구조와 계급분화

과거에는 축제를 통해서 유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이웃사람들끼리 동질성을 확보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참가자들의 경쟁이 심해졌다. 겔라겟사나 카니발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멕시코의 원주민이나 리우의 파벨라 주민들이 서로의 협력을 통해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편 정치적·경제적으로 사회의 중심부에서 격리되어 있는 이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축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들과 전혀 상관없는 외부인들로 채워지면서 동질적인 사회계급의 응집력을 표현하기 어렵게 되었다.

겔라겟사에서는 메스티소 중심의 멕시코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열악한 위치를 점유하는 원주민들이 고유한 전통을 제한적으로 유지한 채 보다 넓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게다가 축제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원주민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서 원주민 사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경제적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주민 사회이지만 문화적으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면서 자신들의 가치와 의미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브라질의 카니발은 계급에 따라 거주공간이 분명히 구분되는 리우에서 지리적 경계를 벗어나면서 계급을 넘어서는 문화적 행위가 된다. 카니발은 행사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사회행위를 지배하는 규칙이 정지되거나 위반되고 바뀌어지며, 평등과 표현의 자유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흑인이나 몰라토들이 사회적 공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런 점에서 카니발은 흑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얻기 위한 투쟁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Rowe and Schelling 1991, 132). 물론 카니발의 발전을 통해서 흑인들의 생활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흑인들이 절대적인 빈곤층을 형성하는 브라질 사회에서 이웃간의 협력과 조직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흑인들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의식의 고양을 통한 흑인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축제를 통해서 참여하는

지역사회나 집단의 동질성이 재확인되고 사회경제적 격차보다는 문화적 의미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경제적 층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Stronza 2001, 269). 켈라겟사나 카니발의 경우에 입장권의 가격이 비싸지면서 같이 즐기던 이웃주민들이 이제는 텔레비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켈라겟사에서는 점차로 외국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서구적인 세련된 미를 강조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미를 소중하게 여기던 원주민 참가자들은 불리하게 되었다. 또한 각종 의상과 춤이 복잡해지면서 참가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실정에서 일부의 외국관광객은 실제로 7월 말에 행해지는 켈라겟사보다 일상적으로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진행되는 단순하고 세련된 켈라겟사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결국 원주민 사회의 사람들보다 마을을 떠나서 현대의 대중문화를 받아들인 원주민들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메스티소들이 축제를 이용해서 돈을 벌게 되면서 원주민사회의 분화가 촉진된다. 카니발에 있어서도 마약사건과 살인, 강도 등의 사고가 빈발하면서 일부의 행사가 중산층 거주지역으로 옮겨져서 전통적으로 카니발에 참가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과거에는 카니발을 위한 의상과 장식수레가 재봉사나 목수와 같은 이웃사람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으나 이제는 전문적인 업체에 하청을 주어서 만든다. 따라서 과벨라지역에서의 일거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부의 성공적인 삼바학교만 더욱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소수의 흑인 참가자들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계급의 상향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축제의 상업성이 증시되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축제가 계급분화나 이동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카니발의 경우에는 1930년대부터 국가의 주도로 상금을 놓고 삼바학교끼리 경쟁하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이에 따라 흑인사회와 삼바학교 사이에 사회적 분화가 발생하였다(Rowe and Schelling 1991, 136; 최금좌 2001, 195-196). 같은 종족집단 내에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경쟁을 하면서 과거의 비교적 동질적이었던 계급이 다양하게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V.4. 지역 및 국가정체성

축제는 국가, 지역 혹은 종족성을 보존하거나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데스 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제의 후원자가 되려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하고 지리에도 밝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문화유산과 지역정체성의 기반이 되고 정체성의 정치성을 이루는 일부가 된다(Corr 2003, 39-40). 이런 현상은 켈라겟사나 카니발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이들 축제가 원주민이나 흑인, 혹은 특정한 백인들의 지역성이나 종족정체성을 과시하는데 이용되었다. 오랜 역사적 전통을 보여줌으로써 백인이나 메스티소들이 지배하는 주류사회에서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지역이나 종족집단을 상징하던 축제들이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멕시코나 브라질 정부는 이들 축제를 통하여 원주민과 흑인문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국가정체성을 국내적 혹은 국외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축제의 내용이나 형식에서도 이런 문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과거와 같이 지역성이나 종족성에 기반을 둔 특징은 약화되면서 의상이나 춤, 소품 등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켈라겟사에서는 대통령이나 외국의 유명인사, 관광객들을 초청하여 화려한 멕시코의 문화적 전통을 과시한다. 참가대표단이 오아하카의 여러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소개하지만 이들 지역 원주민의 생활상이나 문화적 특징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개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도 관심이 많지 않다.

카니발에서는 삼바 등 흑인들의 독특한 전통이 그들만의 고유한 전유물이 아닌 브라질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적 요소로 이해된다. 흑인사회의 문제나 문화적 특징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다. 멕시코나 브라질에서는 켈라겟사와 카니발을 통해 종족, 지역, 계급 등 다양한 배경으로 나뉘어있는 다문화사회의 어려움을 탈피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립시키려고 하며 이런 노력은 현재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가라는 의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종족, 계급, 지역 등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일부 축제의 경우에는 국가의 정책이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지역의 권력구조를 합법화하며 사회적 응집력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인접한 사회나 국가에 대해 집합적인 정체성을 고양시키기도 한다(Vaughan 1991, 215). 이런 현상에는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특정집단에 의해 주도되던 축제에 국가적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VI. 결론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원주민과 흑인, 그리고 유럽의 전통이 융합되면서 집단이나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발전한 라틴 아메리카의 축제는 역사적,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점차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는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적인 생산형태에서 개별적 생산형태로의 변화를 초래하여 축제의 성격과 내용을 바뀌게 하였다. 즉, 이제는 특정한 집단 내부의 소속감을 강조하기보다 개인의 능력이나 힘이 중시되면서 축제도 개인적 성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축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집단이나 지역에 소속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축제의 내용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과거처럼 농업을 포함한 생산활동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게 되었으며 소비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다. 공동의 생산활동을 강화하고 내적인 응집력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없게 되면서 축제는 단지 놀이문화의 하나로 변화되면서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한편으로는 전통문화의 대중문화화가 촉진되어 이제는 축제가 성, 지역, 종족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 경제적 여건이 문화적 차이보다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문화산업의 하나로

만들어지는 축제는 여러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축제에는 여러 형태의 이미지와 상징이 혼합된 채로 존재한다(Harris 2003). 이런 분명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현대의 축제는 항상 사람들에게 의해 도전받고 의심을 받게 되며 새롭게 이해되고 변화된다.

한편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축제의 등장은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시켜서 사회적 괴리감을 서서히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축제에 대한 외부인들의 관심은 증가하는 반면에 사회 내부의 사람들은 흥미를 잃게 되거나 소외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의 축제는 젤라겟사나 카니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속한 사회변화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문화적 의미보다는 경제적·정치적 이익이나 효과 등이 우선하고 다양한 외부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변화의 내용도 광범위해지고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전통에서 축제가 차지하는 역할이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축제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의미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사회문화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국가적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 축제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다시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반영되는지를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roughout the history of Latin America, festival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In the

pre-Columbian and colonial society, rural indigenous societies had actively participated in various festivals to celebrate certain essential communal events or activities. These festivals were used to facilitate the social cohesion of members and to maintain social identity in a given society. Especially, Latin American festivals, like other cultural aspects, are distinguished by their syncretic nature combining the indigenous and European cultures.

In the contemporary societies, many festivals have been transformed since the independence from Europe in relation to the concomitant socioeconomic and cultural changes. For example, many festivals are highly commercialized to gain economic profits and their religious meanings have been gradually weakened because of the declining importance of religion in the daily live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These phenomena can be clearly manifested in the Guelaguetza of Oaxaca, Mexico and Carnival of Rio, Brazil.

In Guelaguetza, originated in indigenous Zapotec custom of gift-giving, people celebrated a goddess in charge of corn, an indispensable agricultural product in the indigenous societies, during the rainy season of July. Many people in the surrounding areas were voluntarily participating in this event to share what they produced in their own communities. However during the colonial period, christian forms and meanings were included in this festival by the Spanish conquistadores. Nowadays, Guelaguetza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gency and people have to pay to be admitted to this festival held in an amphitheater.

Rio's Carnival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European and African cultures at the same time. But it has been slowly losing its Christian characteristics and adding new elements to attract more customers in the contemporary society due to endless efforts to make it more lucrative one by commercial enterprises and professional entertainers.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olidarity and social homogeneity among black participants, it aims at increasing economic profits as a culture industry.

To conclude, contemporary Latin American festivals have been undergone tremendous changes and become a part of popular culture as they are controlled by business-oriented entrepreneurs.

Key Words : Festival, Guelaguetza, Carnival, Mexico, Brazil, Tradition, Popular Culture / 축제, 겔라겏사, 카니발, 멕시코, 브라질, 전통, 대중문화

논문투고일자: 2004. 06. 01

심사완료일자: 2004. 06. 29

게재확정일자: 2004. 08. 16

참고문헌

- 주종택(1998), 「멕시코 농촌지역의 정치적 참여: 정치행위와 정치문화」,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1, No. 1, pp. 39-84.
- 최금좌(2001) 「카니발을 통해 본 브라질의 문화정체성」, 국제지역연구 Vol. 5, No. 2, pp. 181-201.
- Cancian, Frank(1965), *Economics and Prestige in a Maya Community: the Religious Cargo System in Zinacant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2), *The Decline of Community in Zinacantan: Economy, Public Life, and Social Stratification, 1960-8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orr, Rachel(2003), “Ritual Knowledg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Andean Festivities”, *Ethnology*, Vol. 42, No. 1, pp. 39-54.
- De la Peña, Guillermo(1981), *A Legacy of Promises: Agriculture, Politics and Ritual in the Morelos Highlands of Mexico*, Austin: Univ. of Texas Press.
- Friedlander, Judith(1975), *Being Indian in Hueyapan: A Study of Forced Identity in Contemporary Mexico*, N.Y.: St. Martin's.
- García Canclini, Néstor(1993), *Transforming Modernity: Popular Culture in Mexico*,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_____ (1995), *Hybrid Cultures: Strategies for Entering and Leaving Modern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reen, Garth L.(2002), “Marketing the Nation: Carnival and Tourism in Trinidad and Tobago,” *Critique of Anthropology*, Vol. 22, No. 3, pp. 283-304.
- Harris, Marvin(1964), *Patterns of Race in the Americas*, N.Y.: Walker.
- Harris, Max(2003), *Carnival and Other Christian Festivals: Folk Theology and Folk Performan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Martin, Cheryl English(1991), "Public Celebrations, Popular Culture, and Labor Discipline in Eighteenth-Century Chihuahua," in William H. Beezley, Cheryl English Martin and William E. French(eds.), *Rituals of Rule, Rituals of Resistance: Public Celebrations and Popular Culture in Mexico*, Wilmington, DE: Scholarly Resources, pp. 95-114.
- Monaghan, John(1996), "Fiesta Finance in Mesoamerica and the Origins of a Gift Exchange System," *The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Vol. 2, No. 3, pp. 499-516.
- Nash, June C.(1993), *We Eat the Mines and the Mines Eat Us: Dependency and Exploitation in Bolivian Tin Mine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Poole, Stafford(1995), *Our Lady of Guadalupe: The Origins and Sources of a Mexican National Symbol, 1531-1797*, Tucso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Riding, Alan(1984), *Distant Neighbors: A Portrait of the Mexicans*, N.Y.: Vintage.
- Rowe, William and Vivian Schelling(1991), *Memory and Modernity: Popular Culture in Latin America*, London: Verso.
- Stephen, Lynn(1991), *Zapotec Wome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Stronza, Amanda(2001), "Anthropology of Tourism: Forging New Ground for Ecotourism and Other Alternativ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30, pp. 261-283.
- Taussig, Michael(1983), *The Devil and Commodity Fetishism in South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Vaughan, Mary Kay(1991), "The Construction of the Patriotic Festival in Tecamachalco, Puebla, 1900-1946," in William H. Beezley, Cheryl English Martin, and William E. French(eds.), *Rituals of Rule, Rituals of Resistance: Public Celebrations and Popular Culture in Mexico*, Wilmington, DE: Scholarly Resources, pp. 213-245.

Vogt, Evon Z.(1990), *The Zinacantecos of Mexico: A Modern Maya Way of Life*, 2nd. ed., Fort Worth, TX: Holt, Rinehart and Winston.

Wolf, Eric R. and Edward C. Hansen(1972), *The Human Condition in Lat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